

## 장기적 예후가 보장되는 임플란트 술식의 조건

허인식<sup>1</sup>, 정종혁<sup>2</sup>, 허 익<sup>2</sup>, 박준봉<sup>2</sup>, 권영혁<sup>2</sup>  
메리트치과의원<sup>1</sup>,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<sup>2</sup>



### 연구배경

임플란트 술식은 일반 개업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고가의 치료이니 만큼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가 매우 중요하다. 그렇다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가? 몇 가지 증례들을 통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.

### 연구방법 및 재료

첫 번째 증례 : 블록형 자가골 이식을 통해 보다 적절한 보철 디자인을 얻음

두 번째 증례 : 상악구치부의 과도한 정출을 miniscrews를 이용해 교정한 후 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함.

세 번째, 네 번째 증례 : FGG를 이용하여 부착치은을 회복시켜 준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와 부착치은의 폭을 증가시켜주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를 비교함

### 연구결과

블록형 자가골 이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, 정상적인 치관외형을 갖는 보철물을 얻을 수 있었다. 하악 치아의 발거 후 발생한 상악치아의 정출을 교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 정상적인 위치와 외형을 갖는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얻을 수 있었다.

### 결론

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선 임플란트 식립체 못지않게 상부 보철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. 증례보고를 통해 경조직 및 연조직의 상태와 대합치의 위치를 개선하므로 보다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상부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. 부착치은의 존재유무가 임플란트 주위 부착연조직 및 경조직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이에 대해 장기적인 비교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### 연자 약력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수련

경희대학교 치의학 박사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 교수

메트로치과의원 원장